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전화 : 86-10-6505-2671/3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 국무원, 기업 대상 세금감면 정책 지속적으로 실시

- 3월 24일, 리창 총리는 국무원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 대상 세금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- 동 회의의 주요내용으로 △단계별 세금감면 정책을 실시하며,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금공제 비율을 75%에서 100%로 상향 조정 △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2024년까지 연장 실시 △2022년 5월부터 시행해 온 석탄 수입 무관세 잠정세율 정책을 2023년 연말까지 연장 △올해 총 4,800억 위안(약 90조 7,000억 원)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임
- 한편, 지난 3월 22일 발개위는 <2023년 직접회로 및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세제혜택 실시 조치>(关于做好2023年享受税收优惠政策的集成电路企业或项目、软件企业清单制定工作有关要求的通知)를 발표하여 2022년에 이어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대상으로 세금 감면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

자료원 : 국무원, 발개위

http://www.gov.cn/zongli/2023-03/24/content_5748217.htm

<http://www.zqrb.cn/finance/hongguanjingji/2023-03-23/A1679499449104.html>

2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, <화장품 원료 관리 조치> 발표

- 3월 27일,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의 원료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<화장품 원료 관리 조치>(《关于进一步优化化妆品原料安全信息管理措施有关事宜的公告》)를 발표함
- 화장품 원료 관리는 주로 화장품의 원료 품질, 안전 평가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, 해당 조치의 주요내용으로 △2024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 신청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제품 배합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화 △2021년 5월 1일 전까지

화장품 등록을 완료하고, 제품 배합에 <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>(《化妆品安全技术规范》)에 포함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등록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원료에 대한 증명서류 또는 화장품 원료 안전 증명서를 추가로 보완하여 제출 △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미 화장품 등록을 완료하고, 제품 배합에 자외선 차단, 착색, 염색, 기미 제거 및 미백 기능이 들어있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, 등록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증명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국가약품감독관리국

<https://www.nmpa.gov.cn/xxgk/ggtg/qtggtg/20230327145218196.html>

3 中 시장감독관리총국, <치약감독 관리법> 발표..12월 1일부터 시행

■ 3월 22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치약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<화장품 감독 관리법>에 따라 <치약감독 관리법>(《牙膏监督管理办法》)을 발표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

*동 법에서의 '치약'의 정의 : 마찰방식으로 인체 치아표면 및 그 주변 조직에 청결, 미화, 보호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체 및 반고체 제형의 제품

- 동 규정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, 주요내용으로 △치약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 (수입산 치약포함) :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및 현급 이상 지방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등록을 진행 △치약 등록 시 제출 서류 : ①등록인의 이름, 주소, 연락처 ②생산기업의 명칭, 주소, 연락처 ③제품명칭 ④제품 배합 ⑤제품 표준 ⑥제품 라벨 ⑦제품 검사보고서 ⑧제품안정성 평가자료 ⑨수입산 치약은 자유판매증명서 및 해외 생산 기업이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 규범에 부합된다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△치약의 원료에 대해 분류하여 관리 : 부식 방지, 착색 등 기능별로 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 한 후 신 원료로 사용가능 △신 원료를 사용한 치약 생산기업 대상 시장 진입문턱을 높임 : 치약을 생산 할 때, 해당 원료가 <치약 사용 가능 원료목록>(《已使用的牙膏原料目录》)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필요. 신 원료는 위험 등급에 따라 3년간 안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, 안전 모니터링을 통과한 신 원료는 사용 가능하며,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<치약 사용 가능 원료목록>에 포함시킴 △치약의 라벨 표기 표준화 : 치약은 의학적 효능을 명시하거나 암시할 수 없으며, 또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시장감독관리총국

https://gkml.samr.gov.cn/nsjg/fgs/202303/t20230323_354050.html

4 中 해관총서, <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안정화 추진조치> 발표

- 3월 20일, 해관총서 국장 위젠화(俞建华)는 국무원 뉴스브리핑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안정화를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- 동 조치의 주요내용으로 △통관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밀수 행위를 방지 △해관총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관 리스크를 방지 △상품 바코드 추적관리 시스템을 활성화 △해외 식품 안전 문제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적시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 △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납세 서비스를 최적화 △물류 효율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원가를 절감 △해외 창고 신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, 기업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△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화물의 반품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임
- 한편, 2022년 12월 기준, 중국 전체의 수출 상품 및 수입 상품의 통관 소요시간은 2017년 대비 각각 67%, 92% 단축된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국무원

<http://www.scio.gov.cn/xwfbh/xwfbh/wqfbh/49421/49725/xgbd49732/Document/1738503/1738503.htm>
<http://news.cctv.com/2023/03/20/ARTIazOBXLJfYpO5oLUbtLKn230320.shtml>

5 中 문화관광부, <4월부터 외국인의 단체관광·방문 회복> 발표

- 3월 27일, 문화관광부는 4월 1일부터 외국인의 단체관광·방문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함
- 해당 조치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, 문화 및 관광업의 회복을 가속화할 계획임
- 한편, 중국 관광연구원이 발표한 <2022년 중국관광시장에 대한 분석 및 2023년 관광 시장 발전 전망>에 따르면, 2003년 중국의 관광시장 규모는 4조원 (약 750조원)에 달해 2019년의 76%를 회복할 것으로 예측함

자료원 : 문화관광부

https://zwgk.mct.gov.cn/zfxxgkml/jlhz/gjjlhz/202303/t20230327_940946.html
<https://m.163.com/dy/article/HUHQHFUN055244D0.html>

6 中 公업정보화부, <차량용 반도체 국가표준 시스템 구축> 의견수렴

- 3월 28일,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<2023년 차량용 반도체 국가표준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>(《国家汽车芯片标准体系建设指南(2023版)》)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여 4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-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 △해당 국가표준 적용 대상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분리 장치, 센서, 광전자, 부품 및 모듈 등이며, △2025년까지 30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 핵심 표준을 제정 △2030년까지 70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핵심기술 및 제품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 등의 목표를 제시함
- 한편,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백인회 부이사장 장용웨이(张永伟)는 현재 중국의 차량용 반도체의 자급률은 10%에 불과하다며, 2030년에 이르러 중국의 연간 수요량은 1,000억~1,200억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, 공급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

자료원 : 공업정보화부

https://wap.miit.gov.cn/gzcy/yjzi/art/2023/art_51d111baad0d4bf8980f29bc2173b01d.html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52375903171716617&wfr=spider&for=pc>

7 中 국가신문출판총국, <한국산 게임 5종 수입 허용> 발표

- 3월 20일, 중국 국가신문출판총국(国家新闻出版署)은 한국 게임을 포함한 총 27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함
- 금번 허가 대상 목록 중, 한국산 게임은 총 5종으로 각각 △넥슨게임즈 '블루 아카이브'(蔚蓝档案) △넷마블에프엔씨의 '일곱개의 대죄'(七人传奇：光与暗之交战) △데브시스터즈 '쿠키런 : 킹덤'(冲呀！饼干人：王国), △넥슨의 메이플스토리H5(史诗战斗幻想) △T3엔터테인먼트의 '오디션'(劲舞团：全民派对) 등임



- 한편, 중국의 외국인 게임 수입허가 건수는 각각 연도별로 2017년 456종, 2018년 50종, 2019년 180종, 2020년 97종, 2021년 76종, 2022년 44종 인 것으로 집계됨

자료원 : 국가신문출판총국

<https://www.nppa.gov.cn/nppa/contents/318/106487.shtml>

<https://finance.sina.com.cn/jjxw/2023-03-21/doc-imymscsn3044369.shtml>

8 中 보아오 포럼, <개방과 포용으로 발전 추진> 발표

■ 3월 28일, ‘아시아의 다보스포럼’으로 불리는 중국의 보아오포럼(博鳌论坛)이 4년 만에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됨

* 보아오포럼 :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국과 한국, 일본, 호주 등 29개국 이 회원국으로 참여해 창설한 비정부·비영리 포럼임

- 동 포럼의 주제는 ‘불확실한 세계 : 단결과 협력으로 도전을 맞이하고, 개방과 포용으로 발전을 촉진하자’(“不确定的世界：团结合作迎挑战，开放包容促发展”)이며, 동 포럼에서 논의될 의제는 총 4가지로 각각 '발전과 보편적 혜택', '거버넌스와 안보', '지역과 세계', '현재와 미래' 등임

- 해당 의제를 둘러싸고 △세계 경제 발전 전망 △기후변화 △산업망·공급망 안정화 △과학기술 혁신분야에서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 제고 △탄소중립 △데이터 안보 △RCE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△일대일로 △중국식 현대화 △청정에너지 △디지털 경제 추진 △차세대 인터넷 △스마트 교통, 스마트 의료, 스마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임

자료원 : 인민망

<http://m.people.cn/n4/2023/0329/c23-20524599.html>

<https://finance.sina.cn/2023-03-29/detail-imynnwtn8304864.d.html>